ARARIO GALLERY SEOUL, POST ARCHIVE FACTION (PAF)

FINAL CUT

- The experimental attempts of "POST ARCHIVE FACTION (PAF)", a local fashion brand based in Seoul, which received accolade and praise at Fashion Week New York, Paris, LA, Beijing, and Tokyo, are introduced within the space of an art gallery
- A convergent approach between art and fashion that expands the boundaries of genres by exhibiting traditional artworks within the presentation
- Discovering the intersection between art and fashion by presenting a three-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the foundations of design, which redefines the notion of style and pattern, through an attitude of deconstruction and experimentation



Installation view of FINAL CUT, Arario Gallery Seoul, 2020 © POST ARCHIVE FACTION (PAF) and ARARIO GALLERY

Title	POST ARCHIVE FACTION (PAF) FINAL CUT
Date	18 March – 16 May 2021
Location	ARARIO GALLERY SEOUL 84, Bukchon-ro 5-gil, Jongro-gu, Seoul, Korea
Exhibited Works	Around 30 works including sculpture, painting, and works on paper
Opening Time	TUE – SUN, 11:00 – 18:00 (Closed on Mon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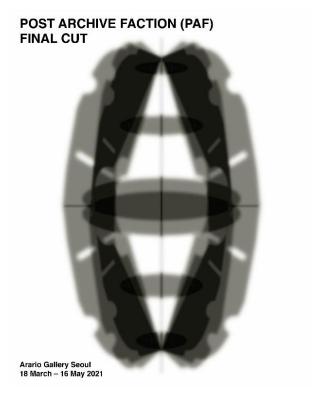
Arario Gallery Seoul is delighted to announce "FINAL CUT", an exhibition by POST ARCHIVE FACTION (PAF). This exhibition adapts an unprecedented state of coexistence, which manifests between the final decision leading to completion and the inception of what is to come. "FINAL CUT" represents the simultaneous embodiment of anxiety and excitement that exists within the interlocking of endings and beginnings, reflecting its infinite nature, much like that of the Mobius strip.

POST ARCHIVE FACTION (PAF), or 'PAF', attempts to introduce its artistic and experimental attitude in the context of art. Founded in 2018, the menswear brand 'PAF' is characterized by its avant-garde experiments that form the basis for its bold and drastic deconstruction of patterns. The artistic experimentation of 'PAF' stems from its philosophy, which is rooted in the idea that strict boundaries between art, fashion, furniture, and design are no longer meaningful in the contemporary era. In the exhibition, 'PAF' takes the spirit of experimentation further by confronting the challenges and questions surrounding the notion of boundaries through visualization.

"FINAL CUT" is comprised of two main sections. In the basement, 'PAF' focuses on conceptualizing the 'pattern'. A pattern is a simple template that finalizes the design and determines the basis of a garment before it is assembled. Erika Cox, Artistic Director of 'PAF', translates two-dimensional patterns derived from garments into three-dimensional objects. This presentation of patterns, which have deviated from the existing perception of the concept, generates a sense of uncertain tension. The simultaneous appearance of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reflects the ethos of PAF, in that a pattern is "most beautiful before its imminent realization." In terms of architectural cognizance, rather than following the conventional method of having light fall from top to bottom and intensively illuminating each work, the light rises from the floor and the works are spread out across the horizon. Visitors float through the space where the light flows in reverse, discovering the pleasure that can only be possible when the dominant perceptual pattern is broken.

Unlike the basement, which approaches the concept of 'pattern' through visualization, 'pattern' is addressed through action and behavior on the second floor. In this regard, a 'pattern' refers to a specific behavioral style that triggers a rethinking of the viewer-participator's behavioral pattern through the cohesion of art and fashion as a physical space. In the exhibition space, artworks and garments are hung from structural installations. The performative act of opening and closing the structures is induced by the natural transition from passive appreciation to active participation.

The artistic experimentation presented by 'PAF' becomes more elaborate with the intervention of artists—original inhabitants of the gallery space—such as KIM Byoungho, GWON Osang, KIM Inbai, LEE Jihyun, NOH Sangho, DON Sunpil, SIM Raejung, and JANG Jongwan. As though they are revealing their hand, each of the artists reveal their 'pattern' in the exhibition, which adapts the structure implemented by 'PAF' and seemingly deviates the execution of the works. Offering an unexpected and pleasant stimulus to both the artists and the audience, "FINAL CUT" is intended to maximize the anomalies that can occur in the moment of coexistence.



© POST ARCHIVE FACTION (PAF) and ARARIO GALLERY

[How to Download Images]

Go to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Download \rightarrow 2. ARARIO GALLERY Seoul \rightarrow FINAL CUT (2021. 3. 18 – 5. 16)

[Inquiries]

PARK Minjin M. +82 10 9765 1719 / E. minjin.park@arariogallery.com

Dir. KANG Sojung M. +82 10 9256 1491 / E. sojung.kang@arariogallery.com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파프) 《파이널 컷》개최

- 뉴욕, 파리, LA, 북경, 동경 등의 패션위크에서 극찬을 받은 서울의 로컬 패션 브랜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PAF, 파프)"의 실험적인 시도들을 미술의 공간에서 구현
- 미술 작가들의 작업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패션과 미술간 융복합적 접근
- 해체와 실험이라는 작업적 태도로 미술과의 접점을 발견하고 양식과 패턴을 지속적으로 재정립해온 디자인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해석



《FINAL CUT 파이널 컷》설치 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0

전시 제목	파이널 컷 FINAL CUT
전시 기간	2021년 3월 18일 ~ 5월 16일
전시 장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길 84 (03053)
전시 작품	조각 10여점, 회화·드로잉 20여점
관람 시간	화요일 - 일요일 11:00 - 18:00 (월요일 휴무)
기자간담회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새로운 형식의 공존을 시도하는 본 전시는 완성을 앞둔 마지막 선택이자 새로운 단계로의 시작점이기도 한, 즉 끝이면서 시작인, 그래서 끝의 불안함과 시작의 설렘이 공존하는 상태에 있음을 고백한다.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순간을 암시하는 '파이널 컷'을 전시 타이틀로 명명한 이유도 바로 이런 뫼비우스의 띠와도 같은 끝과 시작의 영원한 맞물림 상태와 공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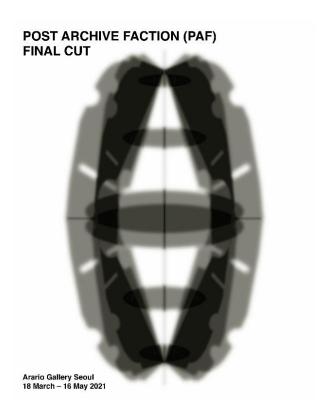
전시 《FINAL CUT 파이널 컷》은 패션 브랜드 "POST ARCHIVE FACTION (PAF)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파프)"(이하, '파프')가 예술과 패션의 경계선에서 실현했던 여러 시도들 중 그들의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특정 태도를 패션이 아닌 미술의 공간 속에서 구현해보려는 시도이다. 2018년 론칭한 남성복 브랜드 '파프'는 패턴의 과감한 해체와 전위적인 실험을 근간으로 하는 브랜드다. 더 이상 예술, 패션, 가구, 디자인 등 경계 나누기가 의미 없어지는 동시대에 예술적실험을 자신들의 브랜드 구현을 위한 철학적 토대로 삼고 있는 '파프'의 여러 시도는 경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들을 가시화하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시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지하 공간에서는 '파프'의 예술적 토대들 중에서도 '패턴'을 개념화하는 데 집중한다. 패턴은 옷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 형태, 즉 완성본이 실제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면서 디자인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다. 이는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경계인데, '파프'의 아트 디렉터 에리카 콕스는 지하 공간에 옷에서 파생된 평면 패턴들을 확장해만든 입체적 오브제, 즉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버린 패턴들을 제시함으로써 중간 상태에서의불확정적인 긴장감을 표출한다. "패턴으로 인식되기 직전이 가장 아름답다"는 '파프'의 철학을 반영하듯 패턴의 해체와 새 패턴의 동시적 등장을 평면과 입체를 오가며 흥미롭게 풀어낸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각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일반적인 전시관람 방식을 비틀어 빛이 바닥에서 위로 솟구치는 공간과 그 속에서 수평적으로 펼쳐진 조각들의 풍경을 연출했다. 관람객들은 빛이 역방향으로 흐르는 공간을 부유하듯 직접 걸어 다니며, 빛이만들어내는 지배적 지각 패턴을 깨버리자 비로소 가능해진 변칙적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

2층에서의 '패턴'은 지하층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하 층에서의 '패턴'이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접근이었다면, 2층에서는 행위와 실천으로서의 '패턴'으로 전환된다. 행위의 측면에서 '패턴'은 특정한 행동 양식을 일컫는 데, 패션 매장과 전시 공간의 묘한 결합이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행동 '패턴'에 대한 재고를 유발한다. 전시장에는 옷과 작품이 함께 진열된 구조물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감상을 위해선 스스로 여닫는 퍼포먼스적 행위가 유도되면서 기존의 수동적 감상에서 적극적 참여로의 전환도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지하에서 2층으로 연결되며 펼쳐지는 '파프'의 예술적 실험 공간은 그 공간의 원 거주자들인

미술작가들 - 김병호, 권오상, 김인배, 이지현, 노상호, 돈선필, 심래정, 장종완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해진다. 이들 작가들은 생소한 전시 방식 속에서 스스로의 패를 공개하듯 자신들의 패턴을 공개하고, 이는 파프의 구조물 속에서 조금씩 어긋난 형태로 구현된다. 이 모든 과정은 작가에게도, 관람객들에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즐거운 자극을 제공한다. 전시 《FINAL CUT 파이널 컷》은 끊임없이 무언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공존의 순간에 발생 가능한 변칙과 그로 인한 즐거움을 극대화해 제시하고자 했으며, 지속적으로 각자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패턴의 인식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시지각적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해보기에 충분한 전시다.



© POST ARCHIVE FACTION (PAF) and ARARIO GALLERY

[이미지 다운로드 안내]

웹하드: <u>http://www.webhard.co.kr</u>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Seoul → FINAL CUT (2021. 3. 18 – 5. 16)

[문의]

박민진 담당 M. 010 9765 1719 / E. minjin.park@arariogallery.com

강소정 디렉터 M. 010 9256 1491 / E. sojung.kang@arariogallery.com